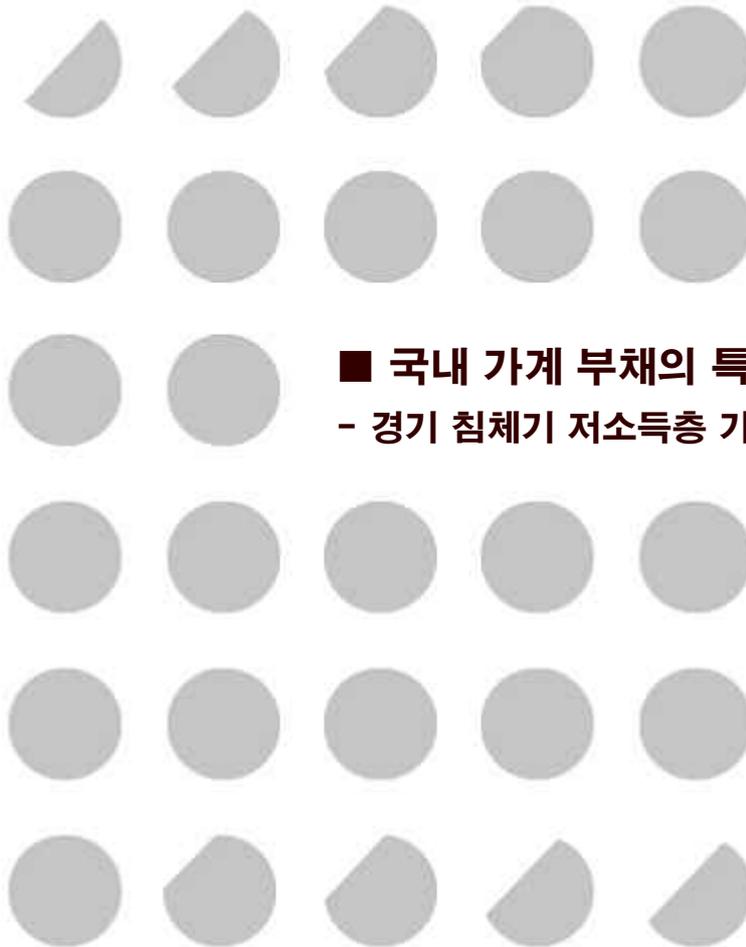




08-39 (통권 317호)

2008.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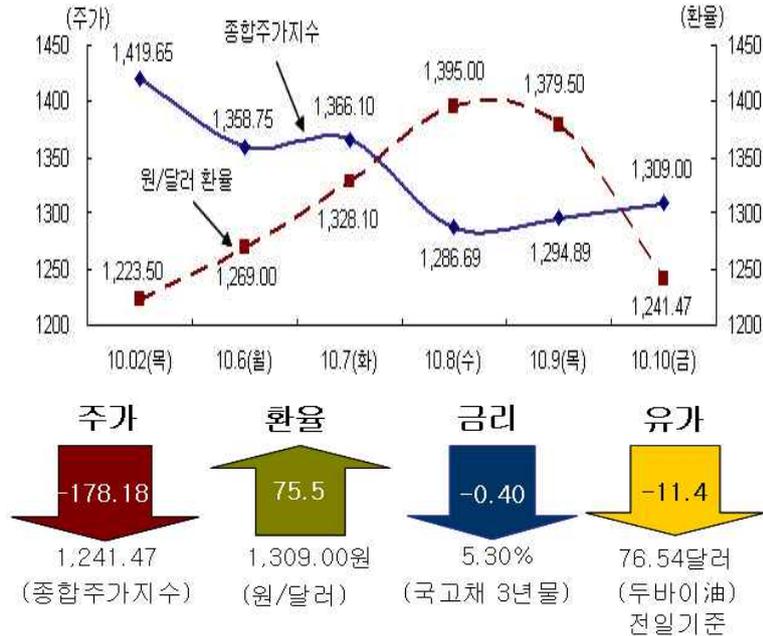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국내 가계 부채의 특성과 해소 방안
- 경기 침체기 저소득층 가계 부채 해결 대책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0.2~10.10)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국내 가계 부채의 특성과 해소 방안	
- 경기 침체기 저소득층 가계 부채 해결 대책	1
주간 경제 동향	19
□ 실물 부문 : 생산자 물가 하락세 지속	19
□ 금융 부문 : 금융 시장 대혼란	20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실 물 경 제 실 : 이 부 형 연 구 위 원 (3669-4011, lbh@hri.co.kr)
 : 이 성 룡 연 구 위 원 (3669-4457, leesy@hri.co.kr)

Executive Summary

□ 국내 가계 부채의 특성과 해소방안

- 경기 침체기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 해결 대책

1. 가계 부채의 현황

최근 가계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증가 속도도 빨라지면서 가계 부실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 시 급감했던 가계 부채가 2005년 4/4분기부터 증가세가 커지면서 2008년 2/4분기에 660조 원을 기록했다. 실제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가계 부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3% 하락 2003년 카드대란 시에는 1.9%로 급감하였으나, 2005년 9.9%, 2006년 11.6%, 2007년 8.4%로 매우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 가계 부채의 구조와 특징

(총량 구조의 특징) 국내 가계 부채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가계 부채 및 금융 부채 규모 증가율이 미국보다 빠르다.** 2007년 말 국내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미국에 비해 다소 낮으나, 2000년 대비 증가율은 66.0%로 미국 39.4%보다 29.6%p나 크다. **둘째, 가계 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크며, 규모도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국내 가계 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06년 4/4분기 37.3%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08년 2/4분기에는 34.8%까지 하락하였으나, 전체 가계 부채 가운데 비중은 여전히 가장 높다. 또한, 절대 규모도 2003년 4/4분기 152.5조 원에서 2008년 8월 307.5조 원으로 101.6%나 증가하였다. **셋째, 가계 판매 신용 증가를 통해 도시 가구들이 소비 지출을 증가시켜 왔다.** 국민 계정상 가계 최종 소비 지출은 2008년 1/4분기 이후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2006년 3/4분기 도시 가구당 소비 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0.4%에서 2008년 2/4분기 8.7%로 증가하였다. 이는 가계 판매 신용 증가율이 2007년 3/4분기에 9.5%까지 하락하다 2008년 2/4분기에 약 18%로 급등하였기 때문이다.

(가구별 가계부채 및 자산 구조의 특징)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경제활동별, 연령대별 가구의 가계 부채 특징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고소득층이 전체 부채의 60% 이상을 보유하여 가계 부채 發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 4분위와 5분위에 전체 가계의 소득, 금융자산, 그리고 부동산 자산의 6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부문별로는 소득 65%, 금융자산 67%, 부동산 자산 62%가 소득 4분위와 5분위 계층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소득 1분위는 12%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부문별로 부채 상환 능력을 비교하여 보면 취약 계층의 상황이 심각하다.** 소득 1분위의 유동자산 대비 부채 비중은 3.06으로 소득 5분위의 1.88보다 1.6배 높다. 또한 가구주 기준으로 살펴보면 30대이하가 60대 이상 보다 2.6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일용직과 가족봉사자가 전체 가구에 비해 1.4배 높다. 마지막으로,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1.5배 높다. **셋째, 경기침체시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문제점이 노출**

되고 있다. 2002년과 2003년의 시점 비교를 통해 가계 재무구조를 살펴본 결과 경기 침체 시 소득 1~2분위 저소득층의 부채 비중은 26%에서 41%로 15%p로 증가하였고, 저소득층의 금융 자산 비중은 23%에서 12%로 9%p 감소하였다.

3. 가계 부채 조정 전망

현재 가계 부채는 추세적인 상승 국면에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태로 2009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가계 부채 규모 추이는 장기 추세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 국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가계부채는 1996년 1/4분기 이후 3번의 확장기와 2번의 조정기를 거쳤는데, 2006년 1/4분기 이후부터는 다시 확장기에 진입한 상태이다. 1996년 이후 1차 조정기는 외환위기와 IT버블시기인 1998년 3/4분기부터 2001년 4/4분기까지 3년 이상 지속되었다. 2차 조정기는 2003년 카드대란에 의해 촉발되었는데, 2003년 4/4분기부터 2005년 4/4분기까지 2년 이상 지속되었다. **따라서 2009년부터 3차 조정기에 진입하여 2011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조정이 이미 시작되었다.** 가계부채 중 약 35%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007년 2/4분기 이후 조정기에 진입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 이후까지 8분기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조정국면을 거쳤던 판매신용 부문은 2005년 1/4분기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추가적 상승 국면에 진입해 있다. 그러나, 가계 부채가 3차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판매 신용도 시차 효과를 가지며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내 가계 부채의 조정기 경기 침체와 금융 경색이 동반된다면 취약 계층의 부채 부담은 더욱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4. 대응 방안

첫째, 내수 경기 활성화를 통한 고용 촉진을 통해 가계의 임금 소득을 높임으로써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정부의 감세 정책과 추경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가계의 소비 심리와 기업의 투자 심리를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만기구조의 장기화 지원책을 통해 급격한 가계 부채 조정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기능 확대와 같은 정부 관련 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 파산 제도의 유연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가계 부채 발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지원의 활성화와 제도 간소화로 저소득층의 줄파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경제 활동을 여력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서민 금융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경기 부진 또는 급변동시 가장 피해가 크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차원의 '가계 부채 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은행권 비중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는 서민금융기관이 활성화될 때까지 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 가계 부채의 특성과 해소 방안 : 경기 침체기 저소득층 가계 부채 해결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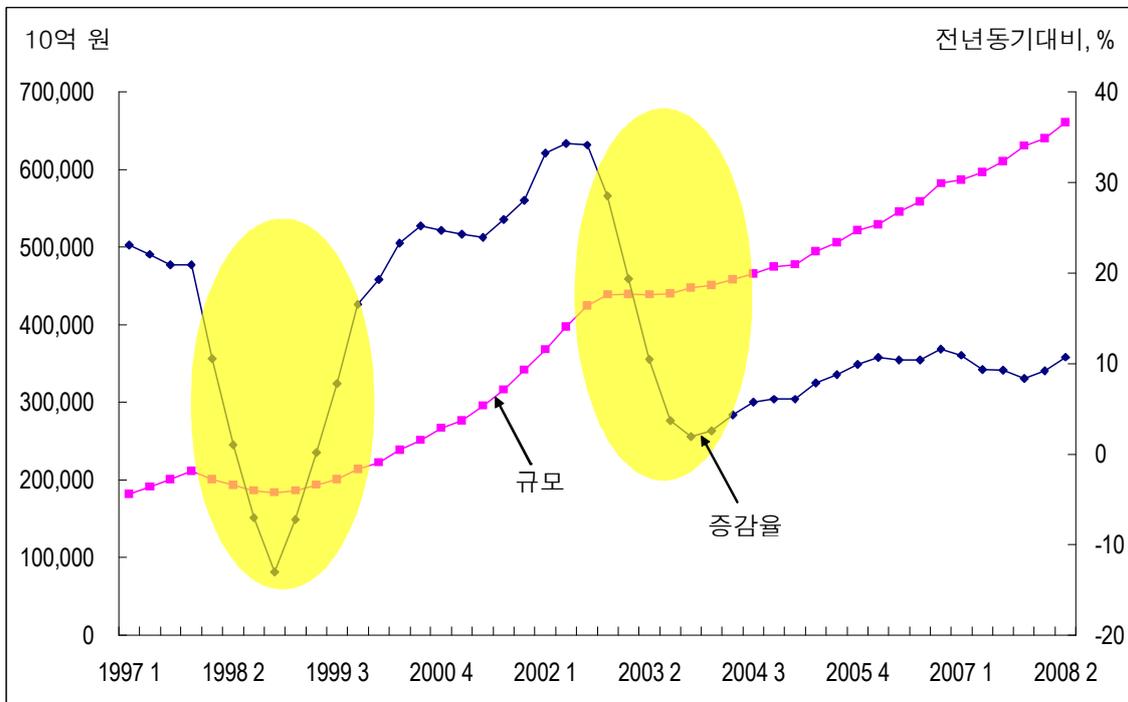
가계 부채 급증	<p>-1998년 4/4분기 183.6조 이후 지속 증가 2008년 2/4분기 660조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채/가처분소득 : 2000년 76.1 → 2007년 126.3 (66% 증가) · 금융부채/가처분소득 : 2000년 83.7 → 2007년 148.1 (77% 증가) 								
가계 부채 구조의 특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총량</td> <td>-미국보다 빠른 가계 부채 및 금융 부채 규모 증가율</td> </tr> <tr> <td>구조의</td> <td>-주택담보대출의 비중 과다</td> </tr> <tr> <td>특징</td> <td>-판매신용의 높은 증가세 지속</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가구별 가계부채 특징 (전가구 대비 비중비교)</td> <td> <p>-고소득층이 전체 부채의 60% 이상 보유 → 가계 부채 발생 금융위기 가능성은 낮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기준 : 소득 4~5분위 부채 61% 집중, 소득 1분위 12% <p>-하지만, 부문별 부채 상환 능력 (유동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취약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득 1분위가 소득 5분위 보다 1.6배 높음 → 소득 1분위(3.06), 소득 5분위(1.88) ② 가구주 기준으로 30대 이하가 60대 이상 보다 2.6배 높음 → 30대이하(3.31), 60대이상(1.29) ③ 일용직과 가족봉사자가 전체 가구에 비해 1.4배 높음 → 일용직과 가족봉사자(1.395), 60대이상(0.9675) ④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1.5배 높음 → 60대이상(3.44), 남성(2.24) <p>-특히, 경기 침체(2002년과 2003년 시점 비교)시 저소득층(소득 1~2분위)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저소득층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기 침체 시 저소득층의 부채 비중 증가 : 26% → 41% (15%p 증가) ② 경기 침체 시 저소득층의 금융 자산 비중 감소 : 23% → 12% (9%p 감소) </td> </tr> </table>	총량	-미국보다 빠른 가계 부채 및 금융 부채 규모 증가율	구조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 과다	특징	-판매신용의 높은 증가세 지속	가구별 가계부채 특징 (전가구 대비 비중비교)	<p>-고소득층이 전체 부채의 60% 이상 보유 → 가계 부채 발생 금융위기 가능성은 낮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기준 : 소득 4~5분위 부채 61% 집중, 소득 1분위 12% <p>-하지만, 부문별 부채 상환 능력 (유동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취약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득 1분위가 소득 5분위 보다 1.6배 높음 → 소득 1분위(3.06), 소득 5분위(1.88) ② 가구주 기준으로 30대 이하가 60대 이상 보다 2.6배 높음 → 30대이하(3.31), 60대이상(1.29) ③ 일용직과 가족봉사자가 전체 가구에 비해 1.4배 높음 → 일용직과 가족봉사자(1.395), 60대이상(0.9675) ④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1.5배 높음 → 60대이상(3.44), 남성(2.24) <p>-특히, 경기 침체(2002년과 2003년 시점 비교)시 저소득층(소득 1~2분위)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저소득층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기 침체 시 저소득층의 부채 비중 증가 : 26% → 41% (15%p 증가) ② 경기 침체 시 저소득층의 금융 자산 비중 감소 : 23% → 12% (9%p 감소)
총량	-미국보다 빠른 가계 부채 및 금융 부채 규모 증가율								
구조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 과다								
특징	-판매신용의 높은 증가세 지속								
가구별 가계부채 특징 (전가구 대비 비중비교)	<p>-고소득층이 전체 부채의 60% 이상 보유 → 가계 부채 발생 금융위기 가능성은 낮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기준 : 소득 4~5분위 부채 61% 집중, 소득 1분위 12% <p>-하지만, 부문별 부채 상환 능력 (유동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취약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득 1분위가 소득 5분위 보다 1.6배 높음 → 소득 1분위(3.06), 소득 5분위(1.88) ② 가구주 기준으로 30대 이하가 60대 이상 보다 2.6배 높음 → 30대이하(3.31), 60대이상(1.29) ③ 일용직과 가족봉사자가 전체 가구에 비해 1.4배 높음 → 일용직과 가족봉사자(1.395), 60대이상(0.9675) ④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1.5배 높음 → 60대이상(3.44), 남성(2.24) <p>-특히, 경기 침체(2002년과 2003년 시점 비교)시 저소득층(소득 1~2분위)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저소득층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기 침체 시 저소득층의 부채 비중 증가 : 26% → 41% (15%p 증가) ② 경기 침체 시 저소득층의 금융 자산 비중 감소 : 23% → 12% (9%p 감소) 								
가계 부채 조정 전망	<p>-1996년 1/4분기부터 보면 2009년부터 3차 조정기에 진입하여 2011년 상반기까지 조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기에 경기 침체와 금융 경색 등이 동반되면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이 더욱 증폭 								
저소득층 가계부채 해소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경기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 - 저소득층 가계 부채 만기 구조의 장기화 유도 - 개인 파산 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유연화 - 서민 금융 안정화 정책 								

1. 가계 부채의 현황

○ (가계 부채 증가세 고조) 1998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 시 급감했던 가계 부채가 2005년 4/4분기부터 증가세가 커지면서 2008년 2/4분기에 660조 원을 넘어섬

-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가계 부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3%, 2003년 카드대란 시에는 1.9%로 급감
- 가계 부채 증가율은 2005년 9.9%, 2006년 11.6%, 2007년 8.4%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분기별로는 2007년 1/4분기 이후 가계 부채 증가율이 감소 추세로 반전되었으나, 2008년 1/4분기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08년 2/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7%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가계 부채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2. 가계 부채의 구조와 특징

○ (미국보다 증가율이 빠른 가계 부채 및 금융 부채 규모) 2007년 말 국내 가계부채의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은 미국에 비해 다소 낮으나, 2000년 대비 증가율은 66.0%로 미국 39.4%보다 29.6%p 큼

- 다만, 한국의 2007년 가계부채의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은 일본의 금융 위기 시점인 1990년의 129.3% 보다는 3.0%p 낮음
- 금융 부채의 가처분소득 대비로는 2007년 현재 2000년 대비 증가율이 43.5%로 미국의 27.2% 보다 높음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및 금융부채 비율 추이 >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미국 (%)	97.5 (102.8)	102.6 (107.3)	108.8 (112.9)	116.4 (120.8)	121.9 (127.2)	129.3 (134.1)	134.6 (139.8)	135.9 (141.3)
한국 (%)	76.1 (83.7)	93.4 (96.3)	113.3 (128.09)	110.8 (128.7)	111.1 (127.0)	116.8 (134.7)	123.8 (142.5)	126.3 (148.1)

자료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한국은행.

주 : ()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 (여전히 높은 주택담보 대출 비중)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가계 부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규모 또한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

- 국내 가계 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06년 4/4분기 37.3%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08년 2/4분기에는 34.8%까지 하락하였으나, 전체 가계 부채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큼
- 단, 절대 규모 자체는 2003년 4/4분기 152.5조 원에서 2008년 8월 307.5조 원으로 101.6% 증가하였음

< 주택담보대출 규모 및 증가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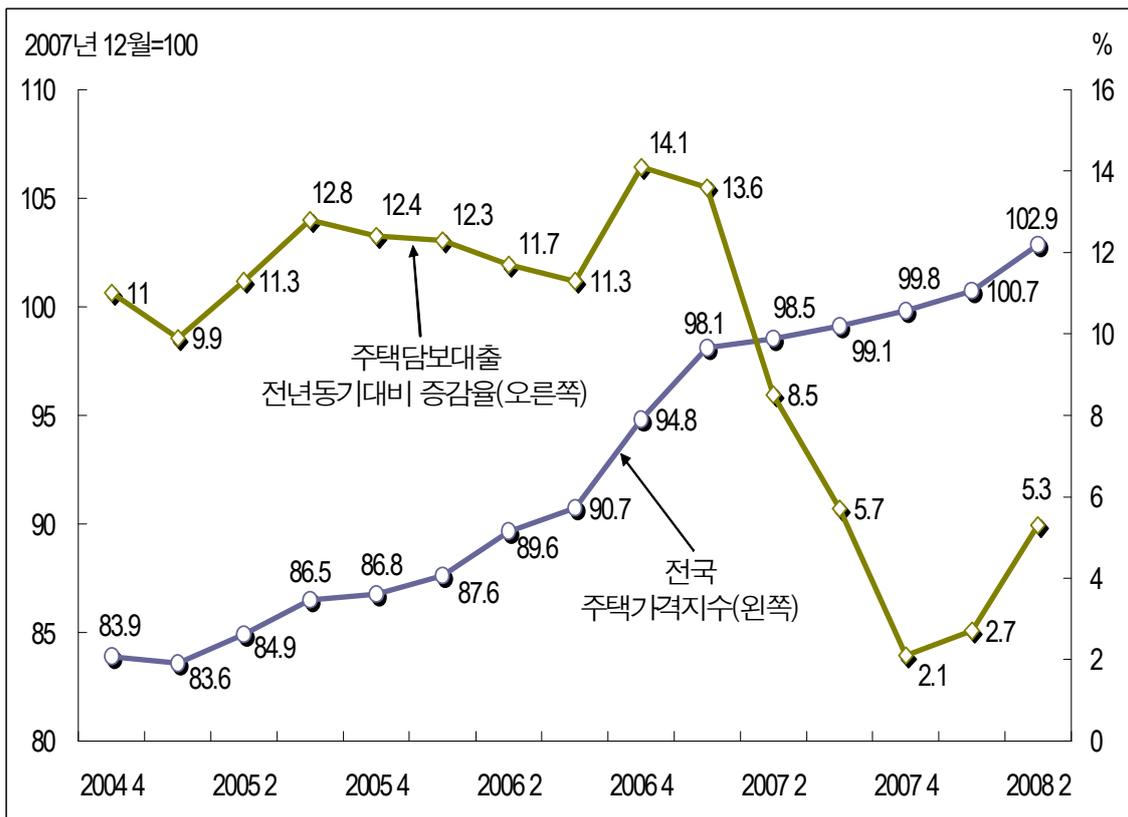
구 분	2003년 4/4분기	2004년 4/4분기	2005년 4/4분기	2006년 4/4분기	2007년 4/4분기	2008년 1/4분기	2008년 2/4분기
규 모	152.5 (34.1%)	169.2 (35.7%)	190.2 (36.5%)	217.1 (37.3%)	221.6 (35.1%)	224.3 (35.0%)	229.5 (34.8%)
증감율	-	11.0%	12.4%	14.1%	2.1%	2.7%	5.3%

자료 : 한국은행.

주 : () 안은 전제 가계 부채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

- 이는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가계의 주택 마련 부담이 커지고, 일부 투기 목적의 대출 또한 증가하였기 때문임
- 전국 주택가격지수는 2005년 1/4분기 83.6을 저점으로 지속 상승하여, 2008년 2/4분기에는 102.9로 2005년 1/4분기 대비 19.3p 상승
- 주택 가격 상승과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또한 2005년 1/4분기부터 2007년 1/4분기까지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후 하락하다 최근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음
- 2007년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급감한 이유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지속되었기 때문임¹⁾

<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국민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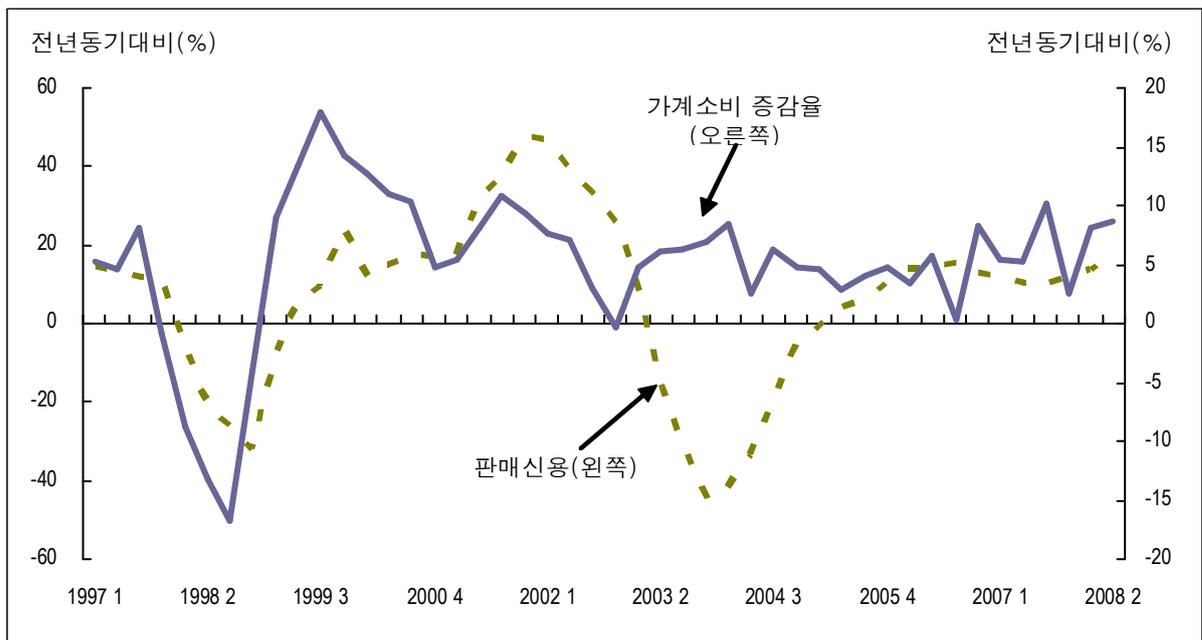
주 : 국민은행의 전국주택매매가격 지수는 월별로 발표되는데, 여기에서는 3개월 평균치를 이용.

1) 2005년 8.31 부동산대책에 이어 2006년 8.31 후속 조치, 동년 11월 15일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이어졌고, 특히 6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은행과 보험사의 주택담보 인정비율 예외적용 대상 폐지로 인해 주택담보 인정비율이 60%에서 40%로 축소되는 등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히 규제함에 따라 2007년도에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감소함.

○ (판매 신용 증가) 가계 판매 신용 증가를 통해 도시 가구들이 소비 지출을 증가시켜 왔음

- 전년 동기 대비 가계의 판매 신용 증가율은 2005년 2/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됨
- 특히 2006년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5.1%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07년 3/4분기에 동 9.5%까지 하락하다 2008년 2/4분기에 약 18%로 급등 하였음
- 이는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감소하던 도시 가구의 소비 지출 증가율이 최근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임
 - 도시 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2004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8.5%로 급증한 후 2006년 3/4분기까지 등락을 거듭하면서 0.4%까지 하락하였으나, 2006년 4/4분기~2008년 2/4분기까지 평균 6.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특히 2008년 들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 8.2%, 2/4분기 8.7%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가계 소비 및 가계 판매신용 증가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가계 부채 구조 분석 방법) 국내 가구의 특성에 따른 부채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을 이용
- (고소득층의 소득,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부채 집중 현상) 소득분위별 가계 채무구조를 분석해 본 결과 소득, 자산, 그리고 부채가 고소득(소득4, 5분위)계층에 집중되어 계층간 불균형이 극심함²⁾
 - 소득 4·5분위의 소득, 금융자산, 그리고 부동산 자산은 각각 65%, 67%, 그리고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소득 4·5분위의 부채 및 금융 부채의 규모는 각각 62%와 61%를 차지하여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가계자산조사』 자료³⁾의 63%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자산 및 부채 규모 집중 현상) 고용상태별 가계 채무구조의 부채와 금융부채를 분석해 본 결과 상용근로자의 자산 및 부채 규모가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냄⁴⁾
 - 고용형태별로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직)에게 부채 규모의 절반이 집중되어 가계 부채 조정 기간 중 추가적인 고용불안은 가계 채무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남성 가구주와 40·50대 가구주에 자산 및 부채 규모 집중) 가구주의 연령, 성별에 따른 부채 규모를 분석해 본 결과 50·60대의 부채 규모는 64%를 차지하고 남성 가구주의 경우 부채 규모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⁵⁾
 - 30대이하 가구주의 경우 부채 규모는 11%로 60대이상 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금융부채의 경우는 21%로 60대이상의 10%에 비해 두배 이상을 수치를 기록함
 - 따라서 30대이하의 가구주의 경우는 금융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사료됨

2) Cox et al.(2002) 영국의 가계조사(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를 이용하여 영국 가계의 금융압박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가 동시에 높은 소득과 순자산을 보유하는 특성을 기록

3) 유경원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보험연구원, 2008.09.26에 따르면 소득4·5분위의 부채 규모는 63%로 나타남

4) 표본 가구중 경제활동별 가구수는 상용근로자 1,183, 임시근로자 147, 일용직 118, 고용주 203, 자영업자 373, 그리고 가족봉사자 137로 나타남

5) 표본 가구중 30대이하의 가구수는 877, 40대는 1,082, 50대는 1,041, 그리고 60대이상은 750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가구주의 수는 3,407, 여성 가구주는 343으로 조사됨

< 가계 재무구조 부문별 규모 >

		소득	금융자산	유동성자산	부동산자산	부채	금융부채
소득 구분 별	1분위	0.07	0.09	0.09	0.12	0.12	0.11
	2분위	0.12	0.11	0.11	0.11	0.12	0.12
	3분위	0.16	0.14	0.13	0.15	0.15	0.15
	4분위	0.23	0.19	0.19	0.21	0.22	0.21
	5분위	0.42	0.48	0.48	0.41	0.39	0.40
경제 활동 종류 별	상용	0.56	0.53	0.53	0.51	0.52	0.51
	임시	0.06	0.06	0.06	0.05	0.05	0.06
	일용	0.04	0.02	0.02	0.02	0.03	0.03
	고용주	0.13	0.17	0.17	0.17	0.17	0.17
	자영업자	0.16	0.16	0.16	0.17	0.16	0.15
	가족봉사자	0.06	0.06	0.06	0.07	0.08	0.08
연령 별	30대이하	0.20	0.12	0.12	0.18	0.11	0.21
	40대	0.29	0.25	0.24	0.28	0.27	0.30
	50대	0.34	0.33	0.34	0.37	0.34	0.39
	60대이상	0.17	0.29	0.30	0.17	0.27	0.10
성 별	남성	0.93	0.95	0.95	0.93	0.95	0.92
	여성	0.07	0.05	0.05	0.07	0.05	0.08

원자료 : 한국노동패널(2006, 9차조사)

< 참고 > 한국노동패널의 총소득, 총부채, 자산 변수의 구성

- 총소득 = 근로소득 + 금융소득 + 부동산소득 + 기타소득

· 금융소득 = 은행 등 금융기관 이자 및 투자소득 + 사채 등 비금융기관 이자수입 +
주식 및 채권 매매차익 + 배당금 + 기타

· 부동산소득 = 월세 등 임대료 + 부동산 매매차익 + 토지를 도지준 것 + 권리금 +
기타

· 기타소득 = 사회보험 수혜자금 + 이전소득

- 금융자산 = 은행예금 + 주식, 채권 및 신탁 + 저축성보험 + 아직 타지 않은 계 +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돈 + 기타 금융자산

· 유동자산 = 은행예금 + 주식, 채권 및 신탁 + 저축성보험 + 기타 금융자산

· 부동산자산 = 자가시세 + 기타 부동산시세

- 부채 = 금융기관 부채 + 비금융기관 부채 + 개인적으로 빌린 돈 + 전세금, 임대
보증금 받은 것 +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 + 기타

- (가구 패널 재무 구조의 시계열 특성 분석) 경제·금융위기 전후에 고소득계층의 소득,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 규모의 증대 현상이 나타나고, 금융부채와 부채규모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층간 재무 구조의 불균형 악화
 - (경기침체시 고소득층 소득 규모 확장) IMF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과 카드위기 당시인 2003년 당시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의 각각 전체 소득 규모는 71%와 87%로 나타남
 - (경기침체시 고용주, 임시, 일용직 소득 규모 악화) 경제활동별로 경제위기 당시의 소득 규모를 살펴보면 고용주는 2002년 15%에서 2003년 5%로 10%p의 규모삭감을 경험하였고,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8%에서 4%로 감소함
 - (경기침체시 고령층 소득 규모 악화) 연령별로 30대이하는 위기시 소득 규모가 확장되는 반면, 60대이상은 위기시 소득 규모가 축소되어 위기시 고연령층의 재무 구조 악화가 심각한 수준임

< 가계별 재무구조상 소득 추이 >

소득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소득 구분 별	1분위	0.03	0.05	0.06	0.01	0.06	0.06	0.07
	2분위	0.07	0.13	0.12	0.02	0.12	0.12	0.12
	3분위	0.08	0.16	0.18	0.04	0.17	0.17	0.16
	4분위	0.11	0.22	0.22	0.06	0.22	0.22	0.23
	5분위	0.71	0.43	0.42	0.87	0.42	0.42	0.42
경제 활동 별	상용	0.48	0.56	0.52	0.68	0.58	0.53	0.56
	임시	0.06	0.05	0.05	0.02	0.06	0.05	0.06
	일용	0.03	0.03	0.03	0.02	0.03	0.03	0.04
	고용주	0.25	0.12	0.15	0.06	0.14	0.14	0.13
	자영업자	0.12	0.14	0.15	0.15	0.14	0.17	0.16
	가족봉사자	0.06	0.08	0.09	0.08	0.06	0.08	0.06
연령 구분 별	30대이하	0.23	0.24	0.21	0.36	0.24	0.20	0.20
	40대	0.33	0.42	0.35	0.25	0.30	0.30	0.29
	50대	0.28	0.25	0.29	0.32	0.34	0.34	0.34
	60대이상	0.16	0.10	0.14	0.07	0.13	0.16	0.17
성 별	남자	0.97	0.96	0.94	0.96	0.94	0.92	0.93
	여자	0.03	0.04	0.06	0.04	0.06	0.08	0.07

원자료 : 한국노동패널(KILPS), 3차~9차 조사

- (고소득계층과 50대 가구주 경제침체시 금융자산 독점) IMF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과 카드위기 당시인 2003년 당시 고소득층인 소득 4·5분위의 전체 금융자산 규모는 각각 67%와 75%로 경기 확장기 보다 높게 나타남
- (소득5분위 단일 분위층의 금융자산 절반이상 보유) 특히 소득 5분위의 최고 소득계층은 2003년 카드위기 당시 53%의 금융자산 규모를 보유함으로써 단일 소득계층이 절반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함
 - 이는 가구 표본의 경기확장시기(2001, 2002, 2004, 2005, 2006)의 평균인 44.2%에 비해 8.8%p의 금융자산 확장폭을 보여줌
- (상용근로자 금융자산 보유 규모 변화 미미) 반면에 경제활동별로 절반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상용근로자의 경우는 경제위기 당시 금융자산 규모의 확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50대 가구주 경제 침체시 금융자산 확보 노력) 또한 연령별로는 경기침체시 50대 가구주 위주의 금융자산 확장이 일어남

< 가계별 재무구조상 금융자산 추이 >

금융자산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소득 분 위 별	1분위	0.06	0.09	0.11	0.06	0.12	0.10	0.09
	2분위	0.11	0.14	0.12	0.06	0.16	0.13	0.11
	3분위	0.16	0.15	0.13	0.13	0.10	0.12	0.14
	4분위	0.22	0.17	0.24	0.22	0.21	0.20	0.19
	5분위	0.45	0.45	0.41	0.53	0.41	0.46	0.48
경제 활 동 별	상용	0.54	0.56	0.55	0.56	0.61	0.53	0.53
	임시	0.04	0.06	0.06	0.08	0.05	0.04	0.06
	일용	0.02	0.02	0.02	0.02	0.02	0.02	0.02
	고용주	0.22	0.16	0.15	0.13	0.14	0.14	0.17
	자영업자	0.11	0.12	0.14	0.12	0.13	0.18	0.16
	가족봉사자	0.07	0.08	0.09	0.08	0.05	0.09	0.06
연 령 별	30대이하	0.18	0.14	0.15	0.13	0.18	0.14	0.12
	40대	0.33	0.43	0.33	0.30	0.27	0.28	0.25
	50대	0.37	0.29	0.34	0.38	0.36	0.32	0.33
	60대이상	0.12	0.14	0.19	0.19	0.19	0.26	0.29
성 별	남자	0.96	0.97	0.96	0.94	0.94	0.95	0.95
	여자	0.04	0.03	0.04	0.06	0.06	0.05	0.05

원자료 : 한국노동패널(KILPS), 3차~9차 조사

- (경기침체시 고소득층·상용근로자 부동산자산 점유율 고조) 고소득층의 부동산 자산 소유 비중은 2000년 34%에서 2003년 46%까지 상승하였으나 감소세로 돌아서 2006년 41%를 기록함
- (고소득층의 경제위기사 위험자산 헷지 현상) 고소득층(소득5분위)의 부동산 자산 소유 비중은 2002년 32%에서 2003년 46%까지 상승하여 14%p 규모 확장을 함으로써 시계열상 최대 규모 확장을 보여줌
 - 반면에 저소득층인 소득1·2분위층은 각각 2002년 15%, 15%에서 2003년 6%와 13%를 기록함으로써 규모의 축소를 기록함
- (60대 이상 고령층 위기사 부동산자산 규모 축소)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부동산자산을 시계열로 규모를 분석해 본 결과 60대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안전자산으로의 이동현상이 나타남
 - 60대이상의 가구주의 경우 2002년 부동산 자산 보유 비중이 25%에서 2003년 18%로 축소되었으나 이후 2006년 27%로 자산 보유 규모가 확장됨

< 가계별 재무구조상 부동산자산 추이 >

부동산자산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소득 분위 별	1분위	0.10	0.15	0.15	0.06	0.12	0.11	0.12
	2분위	0.18	0.14	0.15	0.13	0.14	0.15	0.11
	3분위	0.21	0.19	0.17	0.14	0.14	0.16	0.15
	4분위	0.17	0.19	0.20	0.22	0.18	0.21	0.21
	5분위	0.34	0.34	0.32	0.46	0.42	0.38	0.41
경제 활동 형태 별	상용	0.46	0.53	0.47	0.53	0.53	0.48	0.51
	임시	0.05	0.08	0.06	0.07	0.05	0.05	0.05
	일용	0.04	0.03	0.02	0.02	0.03	0.02	0.02
	고용주	0.19	0.11	0.15	0.16	0.15	0.17	0.17
	자영업자	0.16	0.15	0.18	0.14	0.16	0.18	0.17
	가족봉사자	0.10	0.09	0.12	0.08	0.09	0.10	0.07
연령 별	30대이하	0.13	0.14	0.11	0.13	0.15	0.12	0.11
	40대	0.37	0.37	0.30	0.35	0.27	0.28	0.27
	50대	0.31	0.31	0.33	0.34	0.40	0.37	0.34
	60대이상	0.19	0.19	0.25	0.18	0.18	0.23	0.27
성 별	남자	0.97	0.95	0.96	0.95	0.95	0.94	0.95
	여자	0.03	0.05	0.04	0.05	0.05	0.06	0.05

원자료 : 한국노동패널(KILPS), 3차~9차 조사

- (경기침체시 고소득층·상용근로자 금융부채 규모 축소) 경제 및 금융위기 시에 고소득층의 금융부채 비중은 2000년 27%와 2003년 26%로 2006년 40%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함
 - (고소득층의 경기침체시 금융부채 축소 노력) 고소득층(소득5분위)의 금융부채 규모는 37%에서 26%로 11%p 규모 축소를 기록함
 - 반면에 소득2분위 계층은 2002년 14%의 금융부채 규모가 2003년 30%로 확장되어 기초 소비를 위해 금융 부채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경기침체시 자영업자와 가족봉사자의 금융부채 확대) 가구주의 경제활동별로 나누어 본 결과 자영업자와 가족봉사자의 금융 부채 규모가 2002년에서 2003년에 각각 3%p씩 확장된 것으로 나타남
 - (50대 가구주의 금융부채 확장이 두드러짐) 50대 가구주의 금융부채는 2002년 30%의 규모를 나타내었으나 2003년 44%로 무려 14%p의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2006년 39%를 기록함
 - 이는 50대의 가구주의 경우 청년실업문제로 인한 20대이상의 자녀 부양과 자녀의 대학등록금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 가계별 재무구조상 금융부채 추이 >

금융부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소득 분위 별	1분위	0.13	0.16	0.12	0.11	0.14	0.12	0.11
	2분위	0.20	0.13	0.14	0.30	0.13	0.14	0.12
	3분위	0.20	0.17	0.19	0.17	0.17	0.15	0.15
	4분위	0.20	0.18	0.18	0.15	0.21	0.22	0.21
	5분위	0.27	0.36	0.37	0.26	0.36	0.37	0.40
경제 활동 형태 별	상용	0.38	0.40	0.39	0.35	0.50	0.45	0.52
	임시	0.04	0.06	0.04	0.03	0.04	0.05	0.05
	일용	0.03	0.03	0.03	0.02	0.03	0.02	0.03
	고용주	0.28	0.19	0.23	0.23	0.18	0.18	0.17
	자영업자	0.15	0.18	0.16	0.19	0.15	0.19	0.16
	가족봉사자	0.13	0.14	0.15	0.18	0.10	0.12	0.08
연령 별	30대이하	0.17	0.18	0.17	0.16	0.22	0.20	0.21
	40대	0.45	0.47	0.41	0.32	0.31	0.31	0.30
	50대	0.31	0.25	0.30	0.44	0.34	0.37	0.39
	60대이상	0.07	0.09	0.12	0.08	0.12	0.12	0.10
성 별	남자	0.97	0.96	0.95	0.94	0.94	0.93	0.92
	여자	0.03	0.04	0.05	0.06	0.06	0.07	0.08

원자료 : 한국노동패널(KILPS), 3차~9차 조사

- (소득계층별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평가)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계의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여 그 비율을 살펴 본 결과 저소득층, 일용직, 그리고 30대이하 가계의 채무 부담이 가중한 것으로 분석됨
- (소득1분위 계층 채무 변제 위험) 부채 대비 유동자산은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소득1분위 계층은 부채 대비 유동자산이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에 근접하는 수치임
 - 반면에 고소득층인 소득5분위 계층은 1.88배로 나타났으나 소득4분위 계층은 부채 비율은 2.73배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소득1·2분위 계층 채무 변제 위험 가능성 심화) 2003년 카드위기 당시 소득 2분위층은 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이 12.08배를 기록하여 현재 소득 1·2분위의 채무 구조는 현저히 취약해 졌을 것으로 전망됨
- (30대이하와 고용주의 채무상환 압력 고조) 2003년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30대이하 가구주의 경우 4.38배, 고용주의 경우 1.35배로 다른 계층에 비해 채무상환 압력이 고조됨

< 가계별 유동자산 대비 부채 추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소득 분위 별	1분위	3.86	4.06	3.38	5.97	2.90	3.54	3.06
	2분위	2.74	1.74	2.70	12.08	2.38	2.18	2.55
	3분위	2.17	2.12	2.82	2.71	4.00	2.92	2.54
	4분위	1.51	2.22	1.92	1.89	2.31	2.71	2.73
	5분위	1.08	1.47	1.75	1.95	2.25	1.97	1.88
경제 활동 형태 별	상용	0.79	0.76	0.75	0.88	0.82	0.83	0.96
	임시	1.19	1.25	1.12	0.56	0.80	1.39	0.96
	일용	1.44	1.22	1.31	0.75	1.94	1.27	1.44
	고용주	1.01	1.10	1.25	1.35	1.39	1.22	0.96
	자영업자	1.42	1.45	1.32	1.23	1.18	1.12	0.99
가족봉사자	1.71	1.78	1.50	1.43	1.83	1.31	1.35	
연령 별	30대이하	1.45	2.21	2.18	4.38	2.39	3.00	3.31
	40대	2.03	2.13	2.49	2.62	3.06	2.78	2.74
	50대	1.39	1.67	2.17	3.16	2.57	2.54	2.55
	60대이상	2.02	1.77	1.85	1.55	2.00	1.47	1.29
성 별	남자	1.70	1.92	2.19	2.83	2.53	2.33	2.24
	여자	1.39	3.07	2.22	3.04	2.65	3.55	3.44

원자료 : 한국노동패널(KILPS), 3차~9차 조사

○ (가계 부채 부담 증가) 금리 상승에 의한 이자 상환 부담 및 원리금 상환 부담률 증가로 가계 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 CD금리 등 이자율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
 -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 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 91일물 CD금리는 2008년 10월 10일 현재 5.98%로 2007년 8월말의 5.29%보다 0.69%p 상승
 -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리 최고 8% 내외로 1년 전의 6.38%보다 1.5%p 이상 상승하여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가중
- 가계 전체적으로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원리금상환 부담률은 2005년 12월 15.3%에서 2007년 12월 20.2%로 2년 간 4.9%p 상승
 - 더욱이 가중평균 가계 대출 금리는 2008년 8월 현재 7.35%로 증가하여 이에 따라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DSR, debt service ratio)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부담률 및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 추이 >

구 분	2005년 12월	2006년 12월	2007년 12월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 (%)	5.63	5.97	6.99
원리금상환부담률 (%)	15.3	19.3	20.2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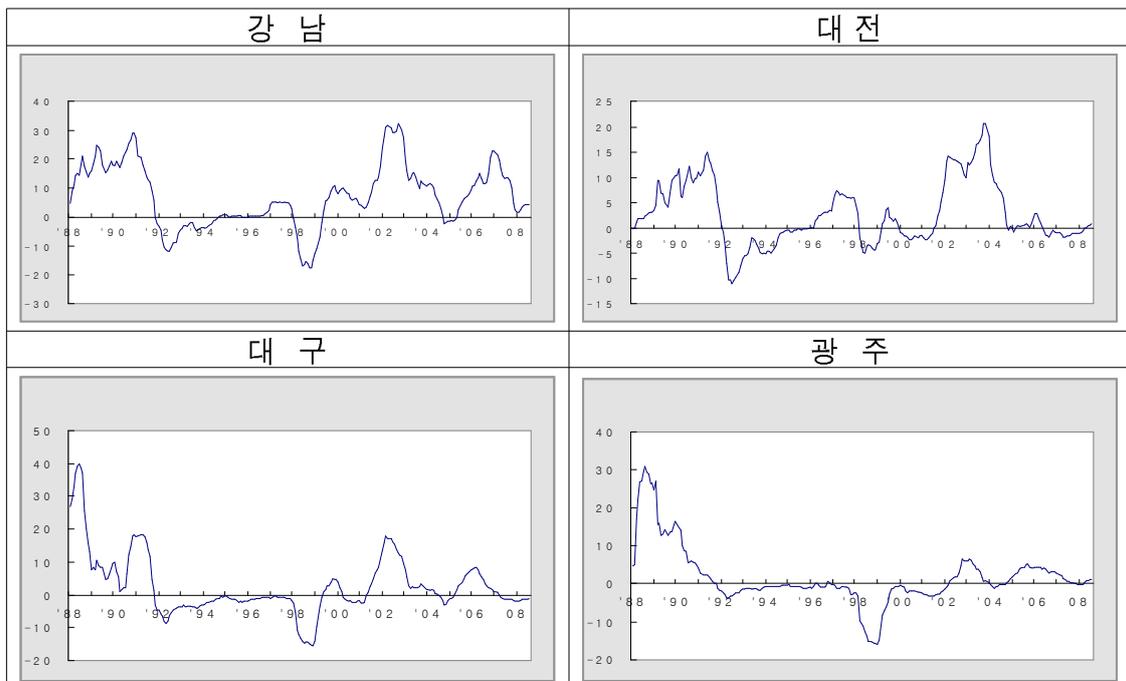
주 : 1) 가중평균 가계 대출 금리 = $\frac{\sum(\text{신규취급금리} \times \text{신규취급금액})}{\sum(\text{신규취급금액})}$.

2) 원리금상환부담률 = $\frac{[(\text{원금상환액} + \text{이자지급액}) / (\text{가처분소득})] \times 100}{}$.

○ (향후 가계 부실 가능성 증대) 최근 고용 부진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주택 경기 또한 둔화되면서 가계 대출 부실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

- 2007년 6월 31.5만 명에 이르던 신규 취업자 수가 2008년 8월에는 15.9만 명으로 절반 수준으로까지 하락, 고용 부진 현상 심화로 인한 가계의 임금 소득 저하로 대출 상환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버블 논란의 주역이었던 서울의 강남구 주택 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등 지방 부동산 경기 악화로 가계 대출 상환 능력 저하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음
 - 서울 강남구의 주택매매가격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2006년 12월 24.5%로 고점에 달한 이후 2008년 들어 1~2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
 - 지방의 경우, 대구는 2007년 3월부터 주택매매가격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마이너스로 전환, 광주, 대전 등 지방 주요 도시들의 경우도 주택매매가격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지방 주택매매가격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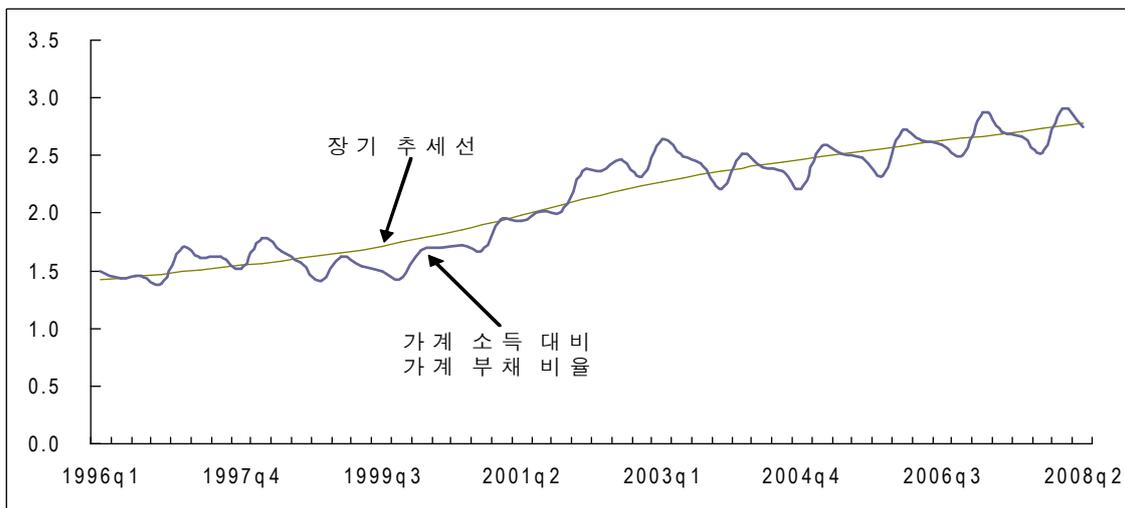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

3. 가계 부채 전망

- (가계 부채의 조정 기간 분석 방법) 국내 가계 부채의 지속성 분석을 통해 현재 가계 부채가 장기 균형 상태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분석한 후 이의 예상 조정 기간을 분석
 - Hodrick-Prescott filter를 이용하여 장기적인 추세선을 도출함으로써 가계 부채의 장기 균형 상태를 도출
 - 가계 부채의 장기 균형 상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이용함⁶⁾
 - 장기 추세선과 가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중의 괴리가 양(+)일 때 가계 부채가 균형 상태에서 과다하게 괴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음(-)일 때 가계 부채가 균형 상태에 못 미쳐 양호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함
- (현재의 가계 부채 규모는 추세적 상승 국면) 현재 가계 부채 규모 추이는 장기 추세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 국면에 있음
 - 2005년 4/4분기 이후 2차 조정 국면을 마친 가계 부채는 2006년 1/4분기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추세적인 상승 국면을 보여주고 있음

<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 추이와 장기 추세 >



6) 최근 신흥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들에서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 펀더멘털과 금융 안정성을 훼손하면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음. 따라서 본 고에서도 단순히 가계 부채 규모의 증가율을 보기보다는 경제 펀더멘털과 금융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주요한 지표인 소득 지표를 활용함. Laura Rinaldi & Alicia Sanchis-Arellano, 'Household Debt Sustainability; What Explains Household Non-Performing Loans?: An Empirical Analysis', ECB, Working Paper Series, No. 570, Jan. 2006.

○ (제3 확장 국면에 진입한 가계 부채) 국내 가계부채는 1996년 1/4분기 이후 3번의 확장기와 2번의 조정기를 거치며 2006년 1/4분기 이후 확장기에 진입

- 1996년 이후 첫 번째 조정기는 외환위기와 IT버블시기인 1998년 3/4분기부터 2001년 4/4분기까지 3년이상 지속되었으며 초과누적평균은 -11.5%p를 기록함
- 2003년 카드위기 이후의 두 번째 조정기는 2003년 4/4분기부터 2005년 4/4분기까지 2년이상 지속되었으며 초과누적평균은 -6.5%p로 나타남

< 가계 소득 대비 가계 부채의 순환 특성 >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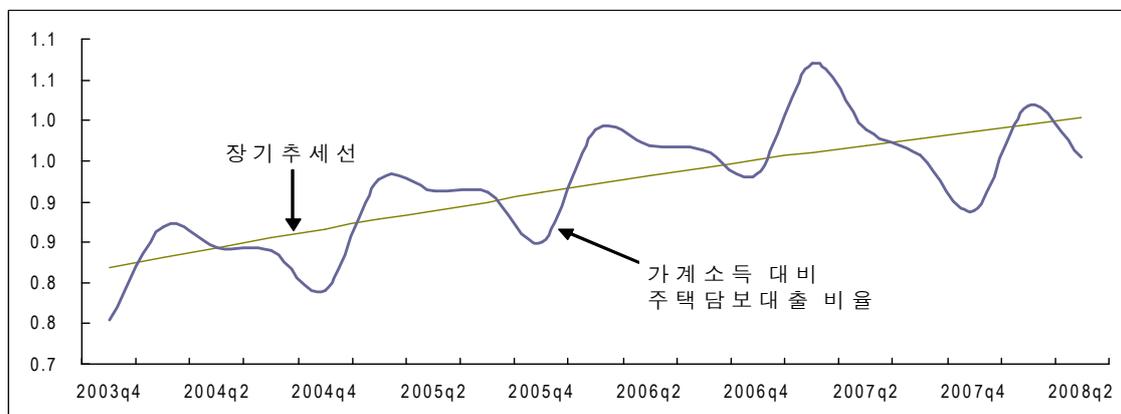
확장기				조정기				조정 비율
시작	종료	지속기간	초과누적 평균	시작	종료	지속기간	초과누적 평균	
1996년 1/4분기	1998년 2/4분기	10분기	6.4	1998년 3/4분기	2001년 4/4분기	14분기	-11.5	64.2%
2002년 1/4분기	2003년 3/4분기	7분기	21.0	2003년 4/4분기	2005년 4/4분기	9분기	-6.5	23.6%
2006년 1/4분기	지속	10분기	0.8	-	-	-	-	-

자료 : 한국은행.

주 : 조정비율은 전체 변동 초과누적 평균 대비 조정기간 초과누적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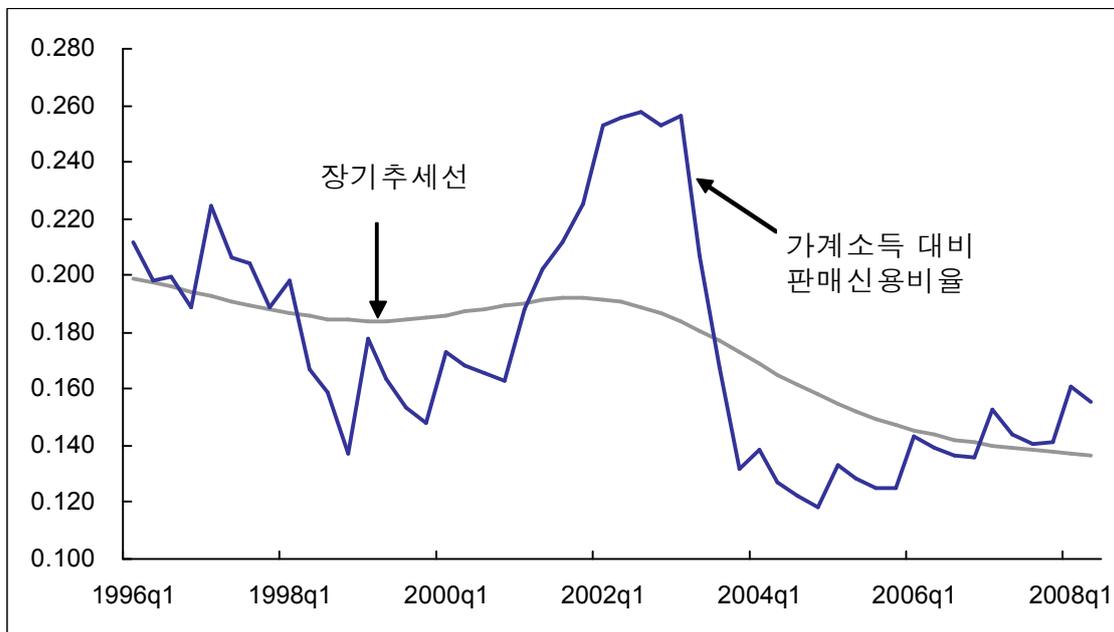
○ (조정 국면에 진입한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중 50%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007년 2/4분기 이후 조정기에 진입하여 4분기 이상의 조정기간을 거칠 것으로 전망됨

< 가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 추이와 장기 추세 >



- (확장 국면에 진입한 판매신용)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조정국면을 거쳤던 판매신용 부문은 2005년 1/4분기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추가적 상승 국면에 진입함
- 그러나, 가계 부채가 3차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판매 신용도 시차 효과를 가지며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음

< 가계 소득 대비 판매신용 비율 추이와 장기 추세 >



- (가계부채 發 디플레이션 우려 심각) 강한 실물자산 선호하에서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부채 규모는 실물과 금융 전반에 걸친 복합불황 가능성 내재
- (가계의 자산/부채 불일치 및 부채상환 위기) 현재 유동성 면에서 가계의 재무구조는 자산/부채의 불일치 상태에 노출되어 있음
- 대부분의 가계부채는 만기 한정된 주택담보 대출 형식이며, 주택금융공사의 장기모기지론의 비중은 매우 낮음(2005년 6월말 현재 6조원 돌파 수준)
- 2007년말 주택담보대출의 97.1%는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3.9%의 주택담보대출이 3년이하 상환구조로 편성되어 있어 부동산가격 폭락과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문의 충격이 높음)

- **(가계부채 민간소비 위축)** 첫 번째 조정기는 IMF 외환위기 이후 부채 부담과 관계없이 반등 효과에 의한 가계소비 증가가 보였으나, 두 번째 조정기때는 카드위기 이후 증가되었던 가계 부담으로 인해 평균 2.9%p 소비 침체를 경험함
 - 가계소비의 GDP기여율은 두 번째 확장기에서 조정기로 전환시 25.7%에서 14.5%로 11.2%p 감소하였으나 2008년 2/4분기 40.1%로 증가함
 - 하지만 민간소비의 경제성장률 기여율은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음. 예를 들면 1996년 1/4분기 59.8%에서 2008년 2/4분기 22.5%로 37.3%p 감소함

< 가계 부채의 가계소비 위축 >

(단위 : %)

확장기						조정기					
시작	종료	지속기간	가계 소비	GDP	소비 기여율	시작	종료	지속기간	가계 소비	GDP 평균	소비 기여율
'96.1/4	'98.2/4	10분기	1.1	3.4	61.2	'98.3/4	'01.4/4	14분기	5.5	5.3	66.6
'02.1/4	'03.3/4	7분기	4.1	5.2	25.7	'03.4/4	'05.4/4	9분기	1.2	4.4	14.5
'06.1/4	지속	10분기	4.2	5.1	40.1	-	-	-	-	-	-

4. 대응방안

- **(첫째, 내수 경기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 내수 경기 활성화를 통한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가계의 임금 소득을 높임으로써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높여야 함
 - 특히, 정부의 감세 정책과 추경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가계의 소비 심리와 기업의 투자 심리를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함
- **(둘째, 저소득층 가계 부채 만기구조의 장기화 유도)**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 만기구조의 장기화 지원책을 통해 급격한 가계 부채 조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야 할 것임

7) IMF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가변금리 상품의 비중은 미국이 31%, EU가 46%, 그리고 영국이 72%를 차지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기능 확대와 같은 정부 관련 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인 파산 제도의 유연성과 투명성 제고) 개인 파산 제도의 유연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가계 부채 발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지원의 활성화와 제도 간소화로 저소득층의 줄파산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임
 - 한편, 저소득층의 경제 활동 여력을 지원해 주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 방안도 고려해야 함
- (넷째, 서민 금융 안정화 정책) 저소득층의 경우 경기 부진 또는 급변동시 가장 피해가 크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차원의 '가계 부채 조정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와 같이 은행권 비중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는 서민금융기관이 활성화될 때까지 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해야 함

이부형 연구위원(02-3669-4011, lbh@hri.co.kr)

이성룡 연구위원(02-3669-4457, leesy@hri.co.kr)

참고문헌

- Meral Karasulu, Stress Testing Household Debt in Korea, *IMF Republic of Korea: Selected Issues*, IMF Country Report No. 08/296, Sep 2008
- Magdalena D. Riiser etc, Developments in Household debt. An analysis of microdata for the period 1986-2003, *Economic Bulletin*, 2/06
- Pru Cox, John Whitley and Peter Brierley, Financial Pressures in the U.K household sector: evidence from 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Bank of England Quarterly Bulletin*, Winter, 410-19
- 성영애,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변동 관련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17권 제4호, 2006 12월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생산자물가 하락세 지속

○ 9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공산품 가격 하락하고, 숙박요금 하락 등으로 서비스 부문의 가격도 하락하여 전월대비 0.3%(전년동월대비 11.3% 상승) 하락함

- 농림수산물은 출하증가 및 수요감소로 채소, 과일, 축산물, 수산물 등이 내려 전월대비 4.2% 하락하고 전년동월대비 5.0% 하락함
- 공산품은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석유화학제품, 1차금속제품이 내린데다, 대미달러 원화환율상승으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 등도 올라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16.8% 상승함
- 서비스는 부동산(0.4%), 리스 및 임대(2.5%) 등이 올랐으나, 위탁매매수수료 하락으로 금융(-3.7%)이 내리고 여관 및 숙박료 하락으로 기타서비스(-0.5%)도 내려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3.0% 상승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3/4	4/4	1/4	2/4	8월	9월	
경기	경제성장률	5.1	5.0	5.1(1.5)	5.7(1.6)	5.8(0.8)	4.8(0.8)	-	-	
	수요	소비재판매	4.1	5.3	7.1	4.5	3.9	2.5	1.5	-
		설비투자추계	8.9	8.6	0.7	9.2	-0.9	0.1	1.6	-
		건설수주	9.0	19.3	-5.6	29.5	-3.9	-6.1	-7.6	-
		수출	14.4	14.1	9.4	18.2	17.4	23.2	18.7	28.7
	공급	광공업생산	8.3	6.8	6.0	11.0	10.6	8.6	1.9	-
		취업자수 (만명)	2,315	2,343	2,361	2,358	2,305	2,387	2,362	-
		실업률	3.5	3.2	3.1	3.0	3.4	3.1	3.1	-
		수입	18.4	15.3	7.3	25.9	28.8	30.2	37.0	45.8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54	60	44	32	-52	-1	-47.1	-
무역수지 (억\$)		161	146	45	27	-59	1	-38	-19.0	
물가	생산자물가	0.9	1.4	1.2	3.0	5.1	9.0	12.3	11.3	
	소비자물가	2.2	2.5	2.3	3.4	3.8	4.8	5.6	5.1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금융 시장 대혼란

○ (해외 금융 시장) 유로화 약세와 엔화 강세

- **금리**: 글로벌 단기금융시장의 경색 지속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수요가 완화되면서 전주말 대비 상승 (국채 10년물 : 3.63→3.79%)
- **환율**: 달러화는 유로 지역 경기 침체 우려감 증대로 유로화 대비 강세를 보였으나, 세계 증시 하락에 따른 글로벌 증시 하락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 (\$/€ : 1.3819→1.3604, ¥/\$: 105.34→99.82)

○ (국내 금융 시장) 주식 시장이 급락하고 원화 환율이 급변동

- **주가**: 미 구제금융 법안의 상원 통과 주요국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증시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연중 최저치를 거듭 경신 (1,419.6→1,241.4)
- **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의 시사로 채권 수요가 급등하면서 하락폭이 심화 (국고채 3년 수익률: 5.70→5.23%)
- **환율**: 달러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로 약 1,300원 후반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 수출 대기업의 대규모 달러 매도와 외환당국의 환투기 조사 등의 영향으로 주 후반 하락세를 보였으나 전주대비 80원 상승 (1,223.5→1,309.0)

○ (전망) 전세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따른 국내 시장 혼조세 예상

< 주요 금융 지표 >

		2007				2008			
		1/4	2/4	3/4	4/4	1/4	2/4	10.2	10.10 ¹⁾
국내	거래소 주가	1,452.5	1,743.6	1,946.5	1,897.1	1,703.9	1,674.9	1,419.6	1,241.4
	국고채3년(%)	4.76	5.26	5.46	5.74	5.10	5.90	5.70	5.23
	원/달러	940.9	923.8	915.1	936.1	990.4	1,046.0	1,223.5	1,309.0
해외	DOW	12,354	13,409	13,896	13,265	12,263	11,350	10,482	8,579
	Nikkei	17,288	18,138	16,786	15,308	12,526	13,481	10,938	9,157
	미국채10년(%)	4.57	5.02	4.59	4.02	3.87	3.97	3.63	3.79
	일국채10년(%)	1.60	1.88	1.69	1.51	1.45	1.60	1.52	1.46
	달러/유로	1.3354	1.3542	1.4267	1.4593	1.5788	1.5848	1.3819	1.3604
	엔/달러	117.83	123.18	114.80	111.65	99.70	106.22	105.34	99.82
	두바이(\$/바렐)	63.12	66.42	76.64	89.06	97.66	136.65	90.04	77.82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10.9) 기준